

천명음이 들린 기관지 확장증환자의 임상적 특성에 관한 연구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이 준혁[✉], 박 진, 김 도진, 주 재학, 기 신영, 어 수택, 김 용훈, 박 춘식

서론: 천명음은 기관지 협착이나 폐쇄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기관지의 영구적인 확장으로 정의되는 기관지 확장증에서도 약 40%의 환자에서 천명음이 보고된 바 있다. 하지만 천명음의 의미나 이와 관련된 임상적 특성들에 대해서는 밝혀진 바 없다. 목적: 이에 저자들은 기관지 확장증의 환자에서 천명음을 호소하거나 청진소견에서 천명음이 관찰된 환자의 빈도와 이들 환자에서의 천명음과 관련된 임상적 특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HRCT와 농성객담, 채위배농시 다량의 객담배출동의 전형적인 증상을 가진 36명의 기관지 확장증 환자를 대상으로 설문지를 통해서 나이, 흡연력, 아토피 유무와 천명음의 여부를 파악하였으며 기초 폐기능, 기관지 확장제에 대한 반응, 메타폴린에 의한 기관지 유발검사, 알레르기 피부반응, 폐확산능과 고해상도 흉부 단층촬영을 시행하였으며 폐기능 검사와 동일한 시기에 객담내 염증세포의 성상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 환자들의 특성은 남자 17명과 여자 19명이었으며 평균연령은 53.72세 이었으며 이들 환자중 천명음이 관찰된 환자는 19명으로 52.78%이었다. 천명음이 관찰된 군(group 1)과 천명음이 관찰되지 않은 군(group 2)로 나누어서 비교하였다.

	group 1	group 2	P
FEV1%	66.09±4.82	88.86±7.59	0.029
FEF25-75%	42.69±6.73	45.60±8.14	0.084
Bronchodilator response(%)	6.25±2.41	7.36±1.74	0.238
PC20(median) (mg/ml)(min-max)	0.92 (0.162-25)	14.9 (0.92-25)	0.06
% of eosinophil in sputum	6.63±3.47	0.98±0.43	0.084

결론: 기관지 확장증에서의 천명음은 기도내 호산구의 염증과 관계가 있으며 또한 기도 과민성의 증가를 반영할 수 있다.

A 항원 양성 비소세포폐암 조직에서의 A 항원 소실의 빈도와 생존률과의 관계

원광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 교실

양세훈[✉], 국향, 구기선, 정은택

연구배경: 혈액형 A 항원의 발현은 적혈구외에 비뇨기, 위장, 폐, 구강점막 등의 상피세포에도 존재한다. 조직 손상치유 과정 중 인접 상피세포는 혈액형 A 항원이 소실되고, 상처가 치유되면 혈액형 A 항원은 다시 발현된다. 일부 악성종양의 조직에서도 혈액형 A 항원이 소실될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종양의 증식이 왕성하다고 보고하였다. 1991년에 Lee 등은 수술한 비소세포폐암의 조직에서 혈액형 A 항원의 소실이 39%(28/71례)였고, 소실여부에 따른 생존률은 조직에서 A 항원이 소실될 경우에 불량하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이에 반하는 보고도 다수 있다.

이에 연구자들은 최근 3년동안 원광대학병원에서 근치적 절제술을 시행 받은 말초 혈액 A, AB형 비소세포폐암 환자를 대상으로 혈액형 A 항원의 소실여부와 생존률과의 관계를 검색하였다.

결과:

1. 대상군은 26례(A형:22례, AB형:4례)로 남녀비는 20:6였고, 평균 연령은 63세였으며, 조직학적으로 편평상피암 16례, 선암 6례, 대세포암 4례였고, TNM병기는 I 이 16례, II가 5례, IIIa가 5례였다.
2. 중앙조직에서 A 항원 발현유지는 15례, A 항원 소실은 11례로서 A 항원 소실률은 11/26례(42%)였으며, A 항원 발현률과 병리조직형, TNM 병기와는 상관관계가 없었다.
3. A항원 발현유지군과 소실군의 중간 생존기간은 11.1개월, 17.5개월이며, 2년 생존률은 36%, 64%로서 A 항원의 소실군의 예후가 양호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

결론: A 항원 양성 비소세포폐암의 중앙조직에서 42 %의 A 항원 소실을 보였으며, 예후인자로서의 유의성은 찾지 못했다.